

博士學位課程의 將來

吳錫泓*

<目次>

- | | |
|--------------------|------------------------|
| 1. 行政學博士學位課程設置의 意味 | 2. 行政學博士學位課程 發展의
構想 |
|--------------------|------------------------|

1. 行政學博士學位課程設置의 意味

1976年에 行政學博士學位課程이 설치됨으로써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은 그 性格變換의一大轉機를 맞이하였다. 行政大學院은 設立된지 20年 동안에 여러 가지 變化를 겪어 왔지만 博士學位課程의 設置야말로 그중 가장 중요한 變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行政大學院의 주된 設立目的은 「行政機關의 高級公務員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設立目的은 음으로 양으로 行政大學院의 性格을 속박해 왔다. 따라서 行政學이라는 學問을 심오정치하게 연구하여 研究·教授業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는(적어도 公式的으로는) 적절한 배움의 터전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行政學碩士課程에서도 적지 않은 教授要員을 배출한 것이 사실이나, 그들은 學問을 하는 職業人에게 필요한 基本的 準備를 미처 못다한 아쉬움을 안고 行政大學院을 떠났다. 그들이 行政學分野의 研究·教授業에서 成功하려면 外國 특히 美國에 가서 博士學位課程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왔다.

行政大學院의 設立目的이 高級公務員의 양성이라고 明示되어 있고 모집정원의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現職公務員을 야간부학생으로 받아 再教育을 시켜 왔으며 行政學의 學士課程과 博士課程을 行政大學院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學問의 심오정치한 研究와는 거리가 먼 特殊學校 내지 訓練機關과 같은 인상(오해)을 주어 이른바 純粹學問을 존중하는 서울大學校의 學問社會와 암암리의 갈등을 겪어 왔다. 이러한 要因은 行政大學院의 발전에 필연코 負의 作用을 했을 것이다.

行政大學院의 教授들은 大學校(大學院)의 教授들이다. 그들은 知識創出을 本業으로 하는 教授로서 學問的 訓練을 쌓아왔다. 博士學位課程이 생기기 전까지는 장차 學問을 生業으로 삼으려는 청중이 制度의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教授들은 상당한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博士學位課程의 설치는 大學院中心의 大學으로 移行해 가는 서울大學校의 發展方向에 부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

함되는 바람직한 조치이다. 서울大學校企劃委員會에서 마련한 「서울大學校發展 10個年計劃에 관한 研究報告書」의 한 구절을 여기에 인용하여 한다.

「서울大學校는 大學院中心의 大學으로 發展될 것이다. 學問共同體다운 大學의 核心的인目標는 知性을 守護하고 發展시키는 최전선의 役軍인 大學教授들을 양성하는 일이다. 이때까지 韓國大學의 教授陳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外國의 大學教育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제 民族의 大學, 世界의 大學으로 성장하려는 서울大學校는 그 量과 質에 있어서 大學教授要員의 國內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점증될國家・社會의 要請에 부응하여 우수한 研究開發能力을 갖춘 研究要員의 教育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行政大學院에 博士學位課程을 설치한 것은 서울大學校를 大學院中心의 大學으로 육성하여 위에 인용한 글에서 보는 目標를 달성하는데 不可缺한 조치이며 韓國의 行政學發達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行政學博士學位課程의 成長은 行政大學院뿐 아니라 韓國의 行政學이 누리는 學問的 地位를 공고히하고 격상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다. 미묘한 이야기이지만 「純粹學問」에 막연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傳統的 學者社會와 行政大學院의 마찰을 줄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보다 直接的으로는 研究・教授業에 종사하려는 생애계획을 세우고 碩士學位課程 이상의 高級教育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通路를 제공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高級education機會의 存在는 그에 대한 需要를 창출하는 誘因도 될 것이다. 그리고 博士學位課程의 設置는 學問研究에 헌신하려는 청중을 制度的으로 확보해 줌으로써 教授들의 知識創出 및 傳達에 대한 慾意를 북돋아 줄 것이다.

行政大學院에 博士學位課程이 생겨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며 벌써 상당한 질서를 잡고 있다. 아직 行政學博士를 배출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의 博士課程修了者가 나왔으며 각학년에 상당수의 學生이 재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과거 大學院에 籍이나 두고 「왔다 갔다」消日하는 타성은 완전히 불식되었다. 學生들은 과중한 學業負擔을 호소하고 있으며 비록 研究・教授職이더라도 職場을 가진 學生들은 學期別로 허용된 限度內의 學點을 전부 이수하지 못하거나 아주 休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事例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博士課程의 수업이 그만큼 충실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에 흔히 생각하던 「韓國式 大學院教育」과는 현격히 다른 발전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理想的 水準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前述한 바와 같은 博士學位課程設置의 目標 또는 期待效果를 제대로 성취하자면 앞으로 뿌리를 깊이하고 가치를 키워나가는 노력을 간단없이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5年 그리고 10年을 내다보고 行政大學院의 博士學位課程을 발전시켜 나갈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음에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

2. 行政學博士學位課程發展의 構想

行政大學院에 설치된 行政學博士學位課程의 運營을 어떻게 發展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개진하는 다음의 意見은 물론 筆者の 管見이다. 筆者の 論點 가운데는 지나치게 理想的 이어서 實現이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一考의 價值도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설령 그러하더라도 實現可能性의 有無에 불구하고 理想的目標가 있는 것은 理想하는 目標조차 없는 것보다 월등히 낫다는 생각에서 주저없이 筆者の 의 보는 바를 피력하는 것이다.

(1) 一般的 發展與件의 造成

博士學位課程 그리고 나아가서는 大學院教育一般의 發展을 전반적으로 制約하고 있는 要因들이 제거될 때 비로소 行政大學院의 博士學位課程도 그 本旨에 맞는 發展의 기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大學院教育 특히 博士學位課程의 充實化에 지장을 주는一般的 要因들은 너무나 많지만 博士課程의 運營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博士學位課程 學生들에 대한 學業費用支援이 크게 不足하다. 따라서 大部分의 學生은 따로 職業을 갖고 學業은 副業으로 삼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韓國 大學院教育의 뿌리깊은 전통으로 되어 있었으며 博士學位課程의 경우 이것이 아직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學業을 專業으로 하도록 둑어 놓을만한 財政的手段을 결여하고 있는 校校는 學生들의 就業을 방관 또는 알선해야 했고, 따라서 專任學生들에게 마땅히 부과해야 할 學業負擔을 주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學生들의 校外就業은 授業의 不充實을 넣고 또 한편으로는 學業의 不充實이 學生들의 校外就業을 조장해 왔다. 일종의 악순환이라 할 수 있다.

博士學位課程의 授業을 충실히 하려면 장학제도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수한 學生을 專任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道具를 教授團에게 제공해야 한다. 授業料免除 정도의 혜택은 그러한 道具로서 너무나 무력하다. 學費와 個人生計費를 충당할 수 있는 장학금제도, 연구조교제도 등을 신설 또는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大學院學生을 위한 기숙사도 마련하고 博士學位課程 學生들이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학제도의 혜택이 모든 學生에게 돌아가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러한 조치를 주장하는 것도 무리일터이다. 장학제도의 혜택이 없더라도 부유한 後見者가 있어 學業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本人이 職業을 가지고 學業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本人이 별거나 집이 부자인 사람만 博士學位課程을 다닐 수 있게 한다면 有爲한 人材育成이라는 目的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部分受講制(part-time enrollment)가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예전에는 高等教育機

關의 學業負擔이 대단치 않아 大學院學生들이 潛在失業人口처럼 취급되었으므로 部分受講制를 운위하는 것은 열빠진 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장학제도는 완전치 않고 대부분의 학생은 校外職業을 가지고 있는데 行政大學院에서 는 學業負擔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온전히 다 내고도 部分受講을 하는 경우, 처음부터 休學하는 경우, 學期中에 受講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위에서 장학제도의 충실화를 이야기할때도 職業있는 學生의 진학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許容學點을 한꺼번에 이수하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部分受講制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學點受講이 허용되어 있을때 8學點 또는 4學點밖에 수강할 수 없는 사람들이 12學點을 모두 受講하면서 절절매는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동정하기 시작하면 점차로 博士課程授業의 水準低下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세째 圖書館施設이 불완전한 것도 중대한 문제이다. 서울大學校의 圖書館은 中央圖書館 하나로 集中化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大學院學生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大學院에는 圖書館의 分館을 설치하고 各專攻分野의 資料를 충분히 비치하여 大學院生들이 時間과 努力を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大學院生에 관한 한 中央圖書館은 分館圖書室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네째 教授가 研究하고 大學院教育에 충실할 수 없을만큼 教授・指導負擔이 많다. 教授에 대한 處遇改善, 負擔輕減에 힘써야 할 것이다. 教授받을 사람에게 주어야 할 장학금이나 혜택을 생각하는데 물두하다 보면 教授할 사람에 대한 處遇改善은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

現在 行政大學院 教授들의 教授負擔은 무겁다. 責任時間 10時間이란 과중한 것이다. 責任時間은 算定함에 있어서 學部나 碩士課程 그리고 博士學位課程의 講義를 同質視하는 것도 문제이다. 教授負擔 이외에 碩士課程學生의 指導와 論文指導라는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學部 1學年學生들의 生活指導까지 맡고 있다. 이러한 負擔은 점차 경감되어야 한다.

다섯째 서울大學校의 綜合化計劃이 촉진된 이래 모든面에 있어서 劃一化의 波高가 너무 높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大學院教育 특히 博士學位課程教育의 發展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 하나의 大學校에 포함되어 있는 各種 教育活動은 물론 統合(integrate)되어야 交互充實化의 利益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必要한局面에 있어서의 行動統一이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며 教育水準의 均質化를 위한 노력도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統合化가 劃一化로 이해된다든지 行動統一의 수준이 지나친다거나 그 副作用이 有害한 方向으로 뻗쳐 나간다든지 하는 事態는 防止되어야 한다.

현재로는 劃一的 規格化가 지나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大學院의 各課程(individual programs)을 담당하는 教授들을 不信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集中管理의 면모도 없지 않다. 博士學位課程의 경우 이를 管理할 教授團이 行政大學院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入學試驗의 管理부터 行政大學院의 權限밖에 있으며 資格考查, 論文審查등의 日程을 포함한 여러 가지 學位課程運營上의 細部事項들이 劃一的 集中管理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行政學博士學位課程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어 있다. 앞으로 課程別自律化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일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高級人材養成構造와 거기서 산출되는 人力을 흡수하는 任用構造 사이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하는 장기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博士學位課程을 아무리 충실화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거기서 處理되어 나오는 人力이 적절한 就業의 機會와 生產의 職業生活에 있어서 成長・發展할 수 있는 機會의 保障이 없거나 그것이 不確實하면 教育의 充實化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政府에서 大學院教育의 중점적 육성을 표방하고 서울大學校를 大學院中心의 大學으로 만들려는 計劃을 실천에 옮겨가고 있으면서도 大學院教育과 任用構造를 연결하는 作業에는 아직 소홀한 것 같다. 行政學博士學位를 받은 사람이 政府機關에 就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國內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學者志望生을 國내의 이른바 一流大學들이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언제까지나 外國學位持者를 우선시키고 國내에서 얻은 學位를 不信하는 풍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大學院의 發展과 學界의 先進化는 결코 달성되지 않는 希望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大學院教育과 任用構造의 연결을 제도화하고 大學院教育을 充實化하며 大學院教育에 대한 인상을 쇄신해 나가는 세 가지 方向의 활동은 同時的으로 전개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學位課程의 運營改善

첫째 入學管理를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 入學試驗의 管理는 지금보다 훨씬 分權化하여 教育을 맡을 教授團이 主導的으로 被教育者를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3月學期募集밖에 없으나 博士學位課程의 특성에 알맞게 9月學期募集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入學試驗의 妥當性을 높이기 위하여 筆記試驗의 범위를 확대하고 書類審查와 面接의 比重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入學試驗의 筆記考查는 行政學과 外國語인데 外國語試驗은 行政大學院의 管轄밖에 있으며, 그 試驗이 과연 行政學博士學位課程의 入學試驗으로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外國語에 대한 試驗은 行政大學院에서 주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行政學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에게 第2外國語試驗까지 보이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도 신중히 반성되어야 할 것이다. 第2外國語試驗이 없는 학교가 「무슨 大學院이냐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常識」도 언젠가는 혼들릴 것이다. 行政學에 대한 試驗範圍도 넓히고 試驗時間도 늘려 候補者的 발전능력을 종합적으로 評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에 말한 部分受講制가 실현된다면 募集對象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行政大學院內에 博士學位課程의 管理主體를 설치해야 한다. 課程의 重要性이나 그

活動의 점진적 확대 전망에 비추어 볼 때 管理主體를 분명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課程의 主任教授와 管理委員會가 그러한 管理主體에 해당한다. 學生은 入學과 동시에 指導教授를 지정 받아야 한다. 授業關係의 指導나 論文指導는 課程管理委員會가 지명하는 指導教授가 맡아야 한다. 指導教授의 選擇을 學生의 임의에 맡겨버리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세째 學科目과 授業은 가능한 한 行政學分野의 폭넓은 지식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장차 大學院水準의 各學科間에 충분한 統合이 이루어지고 行政大學院內에도 分科가 생긴다면 行政學을 專攻으로 하고 인접학문영역에서 副專攻을 선택하도록 課程을 편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行政大學院에 설치된 科目이 주된 履修科目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條件을 얼마동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 行政大學院의 全體科目(博士課程과 硕士課程을 포함한)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分野로 집단화하여 그중 하나를 專攻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副專攻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博士學位課程에 入學한 사람은 博士學位課程의 科目으로 지정된 科目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연결되는 硕士學位課程科目的 内容을 이해한다는 전제위에서 그러한 原則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하는 領域에서 硕士課程의 水準에도 미달하는 理解를 하고 있는 主題가 있다면 당연히 硕士課程의 해당 科目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學土課程의 科目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學生들이 博士學位課程의 科目으로 설치된 것에 대한 所要學點만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學生들은 어디까지나 어떤 「分野」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삼는다는 原理下에서 受講指導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原理의 추구를 위해서는 指導教授와 課程管理委員會가 면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論文提出資格試驗에서는 專攻分野 또는 副專攻分野에 관한 成熟度를 總評해 볼 수 있도록 包括的인 出題를 해야 할 것이다. 學生들이 이수한 博士學位課程科目的 學期末考查같은 것을 綜合試驗에서 되풀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떤 分野를 전공하는 行政學에 대한 學位課程內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共通必須科目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른바 方法論에 관한 科目이 必須科目에 끼이는 것은 양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行政學博士學位課程의 共通必須科目이 「方法論科目」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行政學의 核心科目이라고 평가되는 科目을 博士學位課程의 水準으로 개발하여 共通必須科目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各學科目的 學點配當과 授業은 각기 그 所要와 特性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슨 科目이든지 劃一的으로 3學點이라는 것은 再檢討되어야 할 문제이다. 지금은 草創期이기 때문에 授業運營도 다소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方向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무슨 科目을 수강하는 期末報告書를 반드시 써야 하고 이것을 여러 教授앞에서 발표하게 하는 일은 博士學位課程이 成

長해 간에 따라 없어져도 될 것이다. 앞으로 博士學位課程의 學生이 늘어나고 博士學位課程의 科目이 碩士課程 學生들에게도 開放될 것을 예상할 때 教授團에 의한 期末報告書審查는 하려해도 할 수 없게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네째 學位論文提出資格考査(綜合試驗)는 分野別로 구성되는 試驗委員會에서 共同으로 出題하고 採點하도록 하는 方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方法上의 애로가 수반되겠지만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한 分野別로 包括的인 能力を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共同出題란 複數의 試驗委員들이 협의하여 包括性 있는 문제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共同出題가 실현되면 試驗問題의 數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綜合試驗에 포함되어 있는 語學試驗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入學試驗에서 이미 外國語試驗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外國語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第1外國語試驗과 第2外國語試驗을 入學할때 한번 치르게하고 또 修了할때 다시 한번 치르게 하는 것이 옳다고 어거지를 쓸 수는 없을 것이다. 語學試驗을 두번씩 치르게 하는 것은 碩士學位課程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制度의 存在理由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그것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은 하나의 신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博士學位論文의 작성이 충분히 성숙하면 指導教授는 2人內外의 指導委員을 위촉하여 共同指導 및豫備審查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論文審查는 課程管理委員會의 지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년에 두차례로 되어 있는 固定된 時期에만 論文을 심사하는 것은 學生들에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강요할 경우가 많다. 固定된 審查時期의 직후에 論文을 完結한 사람은 한 學期를 기다려야 한다. 論文을 완성해 놓고 論文審查를 받기 위해 6個月間 기숙사에서 기다리는 專任學生(full time student)의 예를 생각해 보면 그 폐단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事例가 없어서 審查時期를 고정시켜 놓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장래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固定된 審查時期에 맞추느라 未成熟한 論文을 서둘러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면 그 또한 큰 문제이다.

앞에서 任用構造와 教育構造의 연계를 강화하는 문제에 언급하였거니와 博士學位論文審查에 合格한 사람이 즉시 就業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任用節次들은 고쳐야 할 것이다.

博士學位를 받았더라도 大學教員에 취임하려면 두 편 이상의 發表된 論文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要件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論文審查에 합격한 사람은 博士學位課程의 모든 要件을 충족시켰으므로 任用構造에서는 그 사람을 博士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畢業式이라는 形式的 節次때문에 生產的 職業生活의 出發이 늦어져서는 안된다.